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설사 미 금리 인하해도 초금리는 끝났다’
- Bloomberg: 노동시장 둔화 가운데 이직 근로자들 줄어든다
- Bloomberg: 미 화이트 일자리 성장세 정체 상태

#### [미국 금융]

- CNBC: 연준 미팅 앞두고 국채 수익률 감소
- CNBC: 연준 행보 주시하며 달러 약간 하락
- Bloomberg: 견조한 실적 시즌을 맞아 주식 상승세

#### [뉴욕시]

- NYT: MTA, “맨해튼 혼잡세 6월 30일부터 실시”

#### [미국 생활]

- WSJ: 미국 젊은층,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가 상승으로 고령층에 뒤처진다

#### [에너지]

- WSJ: 빅데이터 센터가 ‘청정에너지’ 전환 늦춘다
- Bloomberg: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 속 유가 하락

#### [공급망]

- CNN Business: 멕시코 제조 ‘부흥’... 미·중 갈등 속에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Amazon, 막대한 투자로 상품 배송 속도 빨라져
- WSJ: 머스크, 중국 방문 이후 테슬라 주가 상승
- Yahoo Finance: 맥도날드, 매출 성장세 둔화 전망 ... 미국 내 패스트푸드 체인 트래픽 감소 탓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Even If the Fed Cuts, the Days of Ultralow Rates Are Over** **‘설사 미 금리 인하해도 초금리는 끝났다’**

- 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논쟁거리다.
- 이른바 중립 이자율이다. 이는 저축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유지하고 안정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 상황을 말한다.
- 현재의 급증하는 예상적자와 투자 수요 때문에 중립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 투자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 금리 선물은 시사하는데 연준 금리가 향후 수년동안 4%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중립 금리 상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John Williams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글로벌 노동력이 고령화 때문에 저축률이 중립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WSJ 기사

## Bloomberg: In-Demand Workers Are Staying Put as US Labor Market Cools

### 노동시장 둔화 가운데 이직 근로자들 줄어든다

-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연방중앙은행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최근 수개월간 0.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직하는 근로자들, 주로 전문 기술 노동자들의 이직이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 전망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하거나 과거처럼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연방 노동 통계를 보면 구인 일자리 숫자는 지난 2022년 3월에 1천 2백만 개에서 8백 76만개로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총고용 숫자 중에서 자발적인 이직자 비율은 지난 2020년 이래 최저치로 낮아졌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White-Collar Job Growth Stalls, Even in Pandemic Boomtowns

### 미 화이트 일자리 성장세 정체 상태

-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에서 금융, 기술, 미디어, 그리고 법률과 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 블룸버그 뉴스가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에 있는 기업 직종 12만개가 사라졌고 피닉스와 시애틀 같은 좀 더 작은 허브 도시에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팬데믹 때 붐을 이룬 오스틴과 마이애미에서도 노동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CNBC: Treasury yields fall as investors look to Fed meeting****연준 미팅 앞두고 국채 수익률 감소**

- 투자자들이 내일 화요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연준 관리들이 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일에 기자 회견을 하는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월요일 미 국채 수익률은 줄었다.
- 10년 국채 수익률의 경우 3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줄어들어 4.636%, 2년물의 경우 2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한 4.985%로 기록 중이다.

CNBC 기사

**CNBC: Dollar slightly dips as markets wait for U.S. Fed****연준 행보 주시하며 달러 약간 하락**

- 달러는 오늘 월요일 오전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 미 달러 인덱스는 0.2% 낮은 105.67을 기록 중이다.
- 투자자들은 5월 1일 연준 금리 발표를 기다리는 중인데 계속된 인플레이 강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리들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5.25%~5.5%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올해는 아마 한차례, 11월에 들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Stock Bulls Look to Earnings With Fed in a Corner****견조한 실적 시즌을 맞아 주식 상승세**

- 4월 대부분의 경우 후퇴하던 주식은 4월 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적 발표 시즌의 초기 단계인데 미 기업들의 80% 이상이 예상치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어닝은 작년 동기에 비해 4.7% 상승중이다. 시즌 전 예상치는 3.8% 였다. 연준 고금리 유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 이번주에 아마존은 판매 상승이 기대될 수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 매출 고전으로 실적이 하락 할 가능성이 있고, 칩 제조업체인Advanced Micro Devices, Qualcomm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 [뉴욕시]

**NYT: Congestion Pricing Will Start on June 30 in New York City, M.T.A. Says**  
**MTA, “맨해튼 혼잡세 6월 30일부터 실시”**

-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뉴욕시 혼잡세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정치적인 그리고 법적 갈등으로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뉴저지 필립 머치 주지사와 영향력 있는 노조와 뉴욕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 이 시책에 따르면 60스트리트 아래로 내려가는 탑승자는 하루 15불이 초과되면 트럭은 사이즈에 따라 24불에서 36불 사이, 그리고 택시 요금은 1.25달러와 후버, 리프트 요금의 경우는 2달러 50센트씩 상승한다.

NYT 기사

## [미국 생활]

**WSJ: Young Americans Are Getting Left Behind by Rising Home Prices, Higher Stocks**  
**미국 젊은층,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가 상승으로 고령층에 뒤처진다**

- 주택, 주식 및 기타 금융 자산의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 리더들과 기업 경영진은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가 상승을 경제 순환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 하지만 이러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기성세대와 그들의 자녀 및 손자 세대 간의 부의 격차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수년 전의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만 투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
- 이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힘든 시기라고 말한다.
-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구입 가능성은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틀랜타 연방 준비은행은 현재 중간 가격대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득의 40%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SJ 기사

## [에너지]

**WSJ: How Big Data Centers Are Slowing the Shift to Clean Energy**  
**빅데이터 센터가 ‘청정에너지’ 전환 늦춘다**

- 북부 버지니아와 같은 곳에 일명 ‘초대규모 데이터 센터(hyperscale data centers)’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자 했던 전력 기업의 계획이 수정됐다. 즉,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때문에 예정보다 더 오랫동안 석탄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인 것.
- 데이터 센터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Chat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모델의 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했다.
-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및 기타 산업의 수요 충족으로 인해 화석 연료를 추가하거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을 연기할 예정이다.
- 북부 버지니아에 위치할 다수의 신규 데이터 센터는 ‘초대규모’ 또는 이전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크게 지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대형 데이터 센터는 시애틀시만큼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WSJ 기사

### **Bloomberg: Oil Declines as Traders Watch US Efforts for Truce in Gaza**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 속 유가 하락

- 유가가 급락했다. 트레이더들이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평화 협상을 중개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시장의 단기 긴축 조짐에 무게를 둔 것.
-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1% 가까이 하락했다.
- 미 국무장관 Antony Blinken은 가자지구를 방문해 휴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만남 전까지 라파 침공을 보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공급망]**

### **CNN Business: Manufacturing in Mexico is having its moment. The US is buying in — and so is China** 멕시코 제조 ‘부흥’... 미·중 갈등 속에

- 멕시코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팬데믹 시기의 공급망 혼란을 경험한 뒤,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미·중 간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려는 회사들이 멕시코 업체들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멕시코는 대미 수출에서 중국을 따돌렸다. 이들 멕시코의 수출은 멕시코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이 주도했다고 모건 스탠리는 밝혔다.
- 4월 2일 현재 미국의 대 멕시코 수입은 2월에 계속해서 증가했다. 반면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23년에 전년 대비 20% 줄었다.

##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BC: Amazon says more packages are arriving in a day or less after hefty investment in speedy fulfillment****Amazon, 막대한 투자로 상품 배송 속도 빨라져**

- 온라인 쇼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 아마존이 하루 내로 배송을 완료하는 상품의 물량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루 내 상품 배송'은 많은 이커머스 업체가 고객들에게 내세우고 있는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이다.
- 월요일 아마존은 1분기 미국 상위 60개 대도시 지역에서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접수된 주문의 약 60%가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2분기의 수치인 50%에서 증가한 것.
- 이는 화요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아마존의 주가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월스트리트는 아마존이 두 자릿수 매출 성장 및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익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 CNBC 기사

**WSJ: Tesla Stock Jumps After Elon Musk's Trip to China****머스크, 중국 방문 이후 테슬라 주가 상승**

-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 이후, 월요일 오전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다.
- 중국은 자국 내에서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에 청신호를 보냈다. 중국은 테슬라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 테슬라의 주가는 12% 상승해 약 18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월요일 142.05달러의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한 것이다.
-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기술 대기업 Baidu가 제공하는 맵핑 및 네비게이션 기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 WSJ 기사

**Yahoo Finance: McDonald's set for weak sales growth as US fast-food chains grapple with muted traffic****맥도날드, 매출 성장세 둔화 전망 ... 미국 내 패스트푸드 체인 트래픽 감소 탓**

-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치열한 경쟁 속, 맥도날드의 4분기 연속 매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외식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

- 맥도날드는 오는 화요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BTIG 애널리스트 Peter Saleh는 “맥도날드의 트래픽 감소가 예상되며, 저소득층 소비자 트래픽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할인으로 기업의 고객당 매출이 계속 압박받을 것”이라 말했다.
- 맥도날드는 1, 2, 3달러 가격대의 메뉴를 제공하는 ‘달러 메뉴’를 내세워 저예산 고객들을 유치해 왔다.

Yahoo Finance 기사

## "美 기준금리 내려도 종착점은 예전보다 높을 가능성"

### WSJ "재정적자 급증, AI 투자 수요 등 중립금리 상승에 영향"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적인 금리 수준도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기는 끝났다고 보면서,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 이른바 중립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립금리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으며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추론하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8년 말 기준금리를 2.25~2.5% 수준으로 올린 뒤 연준 인사들은 저성장 저물가를 근거로 중립금리가 그 이하일 것으로 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